

빛을 그리는 작가 김완 개인전

김수영 | 입력 2015-09-11 발행일 2015-09-11 제17면 수정 2015-09-11



김완 작 'lightscape'

◇...빛을 그리는 작가, 빛을 재해석하는 작가로 불리는 김완의 개인전 '상처를 만지다'가 12일부터 10월9일까지 갤러리팔조(청도군 이서면)에서 펼쳐진다.

김 작가는 단색의 화면에 빛을 그려넣은 작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의 변주를 하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식을 구축했다. 작가는 골판지를 작품재료로 쓴다. 최근 그의 작업은 예전에 비해 조금 더 많은 어둠을 보여준다. 이처럼 깊어진 어둠은 빛을 더욱 또렷이 드러내기 위한 예술적 장치이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작가의 내면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다.

12일 오후 4시 개막식에서는 아티스트 토크 콘서트가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지혜가 참여한다. (054)373-6802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프린트

취소